

한국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적(學史的) 고찰* : 1970년대 말까지

김 병 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박 경 란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적(學史的) 논의를 위해 19세기 말 농교육의 도입과 성립(1909) 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를 태동기로 묶어 보고, 1960년대를 성립기로, 이어 1970년대를 전개기로 설정하여 시대 구분하였다. 19세기 말에 유길준은 「서유견문」(1895)의 ‘아인원’ (啞人院)에서 구미의 농교육을 우리나라에 문헌상으로 처음 소개하였으며, 이익민은 Hall이 주선하여 1908년에 중국 계음학교(啓音學校)에서 시화법(視話法; visual speech)을 익혀와 이듬해 평양에서 농교육을 시작하였다. 일제치하에 조선총독부 제생원의 ‘조선맹아자통계요람’ (朝鮮盲啞者統計要覽, 1922, 1928)에서는 당시 농아자 실태와 사회의학적 정보를 최초로 제공해 주었다. 광복 후에 윤백원(1946)은 ‘한글지문자’를 창안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었다. 1950년대 중반에 이기수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Gallaudet 대학에서 농교육 석사학위를 받고 농교사자격증까지 취득하여 주목을 끌었다. 60년대에 접어들며 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설치되고 농교육 전공이 개설되었으나, 초기에는 교육연구보다 청각학적, 보건의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다만 특수교육개론서에 ‘농과 난청아교육’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졌고, 현장교사들에 의해 구어지도와 청능훈련의 효과에 대해 극소수의 제한적인 연구가 행해졌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며 청각학적 연구 외에도 농교육의 역사, 교사교육, 통합교육, 문어능력 등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교육연구가 행해졌다. 특히, 70년대 후반에는 청각장애아의 심리적 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을 보여 연구의 지평을 넓혀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70년대 말까지는 그 이후에 행해진 연구 성과에 비해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초창기’(草創期)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주제어 : 한국청각장애교육 연구, 학사적, 농교육연구, 특수교육연구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 론

2009년은 한국농교육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즉, 평양에서 처음 맹교육을 시작한 Rosetta S. Hall이 한국인 이익민을 중국에 보내 농교육 방법을 익혀 와서 농교육을 시작한 1909년을 그 기점으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Hall이 주선하여 이익민 내외와 그의 조카가 평양에서 농교육을 실천하기에 앞서 유길준(兪吉濬; 1856 ~ 1914)은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에서 19세기말 구미(歐美)의 농교육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학사적(學史的)으로 중요한 문건으로 평가된다. 한국청각장애교육 100주년에 즈음하여 간행된 「한국청각장애교육100년사」(2009)에서는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1) 농교육의 전사(前史), (2) 농교육의 준비기; 구한말에서 1908년까지, (3) 농교육의 성립기; 1909년에서 광복이전까지, (4) 농교육의 전개기; 광복이후에서 특수교육진흥법제정까지, (5) 농교육의 변화와 정체성 혼란기; 특수교육진흥법 발효이후에서 현재까지로 시대구분하고 있다(김병하, 2009, p. 40-64).

그러나 학사적(學史的) 관점에서 본 한국청각장애교육의 시대구분은 위의 기준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청각장애교육 실천의 역사에 비해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역사는 더욱 일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유길준의 「서유견문」 중 ‘아인원’ (啞人院)에서 구미의 농교육 실상이 소개된 이래로 1914년 평양맹아학교에서 제 1회 동양맹아교육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농아의 담화교수법’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후 조선교육연구회 잡지 제43호에 ‘농아인 교육의 비전’ (靑島, 1919)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제생원(濟生院) 맹아부(盲啞部) 아과(啞科) 교육의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이 후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창호(李昌浩) 목사가 평양광명맹아학교를 설립하여 맹교육과 더불어 농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학사적 측면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광복이후에는 서울맹아학교의 초대교장인 윤백원(尹伯元)이 한글 지문자(指文字)를 창안(1946)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 농교육에 대한 최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최정선은 1954년에 이화여대 대학원에 ‘농아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제출하였으나, 그 원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기수(李基洙)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1955년에 Gallaudet 대학에서 농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농교육교사자격증까지 취득하여 이 분야의 지도자로 미국에서 활동하였다. 농교육 분야에서 그가 보인 전문적 활동과 경력은 학사적 관점에서 주목을 끌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규 대학과정에서 청각장애교육교사를 비롯해 특수교사를 양성하게 된 것은 1961년 한국사회사업대학(지금의 대구대학교 전신)에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것에서 비롯된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청각장애교육은 학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다. 즉, 이때부터 대학에서 청각장애교육 전공과정의 개설되어 이 분야의 정규교사를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연구 활동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의 학사적(學史的) 전개 과정을 다음 세 갈래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 농교육이 소개·도입된 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를 청각장애 교육 연구의 태동기(胎動期)로 묶어 논의한다.

둘째, 대학에서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시기(1961)를 기점으로 60년대를 청각장애 교육 연구의 성립기(成立期)로 설정하여 논의한다.

셋째, 이어 1970년대를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전개기(展開期)로 설정하여 논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 역사의 전반적 학사(學史)에 비추어 보면, 1970년대 말까지는 그 연구의 범위와 양적인 면에서 여전히 초창기(草創期)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김승국, 김응범(2009)은 광복이후를 기준으로 청각장애교육 연구 1,027편(논문 981편, 저서 46권)을 분석한 결과, 60년대(1969)까지는 구어지도 연구 중심으로 150편(그 중 학위 논문이 106편임)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연구편수의 1.5%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청각장애교육 연구에 대해 계량적으로 내용 분석한 관련 선행연구들로 김승국(1997)은 광복이후부터 1994년 말까지 발표된 연구논문 1,715편과 저서 207편을 분석하였고, 이어 이한선, 옥정달, 김병하(2004)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주요 학술지(특수교육학회지, 특수교육저널, 난청과 언어장애, 언어장애치료)에 게재된 논문 173편을 분석하였다. 그 후 옥정달(2005)은 1990년대 이후 교육대학원과 특수교육대학원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 125편을 분석하였고, 박경란(2009)은 이한선 등(2004)의 연구에 이어 현재까지 청각장애교육 관련 연구논문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 두 측면에 걸쳐 지적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위의 선행연구들(김승국, 1997, 김승국, 김응범, 2009; 이한선, 옥정달, 김병하, 2004; 옥정달, 2005; 박경란, 2009)은 주로 주제별, 방법별, 대상별로 내용 분석한 결과를 전체적 경향성과 더불어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영향력 있는 주요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당대의 농교육 이론과 실천을 배경으로 질적이면서 다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학사적(學史的) 관점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교육의 소개(19세기 말)와 그 실천적 도입(1909) 이래로 3단계로 구분하여 1970년대 말까지로 그 연구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미시적·계량적 분석에 주안점을 둔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연구 자료는 원저자에 의한 1차 자료(사료)로 한정한다. 다만, 광복이전의 것은 부분적(원 자료의 입수가 불

가능한 것에 한하여)으로 2차 사료(史料)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의 청각장애교육 연구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으므로, 10년 단위로 묶어 별개의 후속연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II. 태동기(胎動期)의 청각장애교육 연구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농교육이 소개된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 말까지 청각장애교육 연구를 학사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농교육에 관한 최초의 문헌은 유길준이 「서유견문」(1895)에서 구미의 농교육을 소개한 ‘아인원’(啞人院)이다.¹⁾ 주지하다시피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단순히 외국 견문기가 아니라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개화사상서이다. 「서유견문」 제17편 ‘아인원’(啞人院, 유길준, 1895, p. 449-450)에서는 구미의 농교육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啞人院은 啞人을 敎訓하는 處所니 其條目이 語學 算術 天文地理學 等に 至하여 尋常한 學校와 無異하나 其敎誨의 始初하는 法은 手指로 泰西文의 二十六字를 形象하여 言語를 不資하고 文字만 見하면 悟解하게하며 又他人의 發言하는 時에 其脣舌齒喉의 運動을 學고 此運動하는 妙機를 學하여 聲音을 發하는 境에 至하면 他人의 言語를 耳聽하기는 不能되 其脣舌及齒喉의 動機를 見고 其語意를 自解하여 他人과 能히 酬酌하니(유길준, 1895, p. 449).

여기서 유길준은 농교육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지문자(指文字)의 활용을 소개하고, 말읽기(speech reading)를 통한 구화교육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유길준은 듣지 못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면서, 농교육의 놀라운 성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啞人이 言語를 不能하는 緣由는 發音하는 機의 不具함이 아니오 但其耳鼓의 鬱塞함으로 聽戶가 不開하여 他人의 音聲을 不聞하는 故로 自己의 音聲도 不調함이니 其證據를 欲明하면 歡樂할 時의 笑音과 悲哀할 節의 泣聲이 天然한 性を 從出하는 者는 能言하는 人과 同함이라 然한 故로 啞人은 其耳가 必聾하니 敎誨하기를 長久히하여 發音하는 形容에 慣熟하면 不解하는 者가 無하여 如何한 學問이든지 能히 學習하며 又書籍을 考覽하기에 至하는 玉篇과 韻藻의 等書로 敎師를 代하여 不通하는 者가 無하고 遊戲하는 器具도 畫圖로 形

象하며 文字로 記號하야 教誨를 不俟하야 能解하느니라(유길준, 1895, p449).

청각장애인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발음기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고막이 막혀 남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여, 부분적으로 수공은 가지만 청각메커니즘 상에 소위 전음(傳音) 기관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보다 결정적인 감음신경성(sensory-neural) 청력손실은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농아인이라 할지라도 발성 지도를 오랫동안 계속하면 구어학습 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데도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했으나, 이것은 구화교육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의 단면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만 해도 Milan 세계 농교육자 대회(1880)에서 구화일변도(oral only)주의가 공식적으로 채택됨(Brill, 1984)에 따라 세계 농교육계에 구화지상주의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말미에 유길준은 자신이 외국에서 직접 농학교를 방문한 실화를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吾人이 外國에 出遊하든 時에 一處 啞人院에 至하야 其教師에게 啞人의 能言하느 舉動을 請見하되 啞者一人을 招來하거늘 起揖하고 寒暄을 敘하니 其人이 亦丁寧히 對答하느니라 更起하야 曰호되 我는 朝鮮人이라 하되 啞人이 壁板에 書하야 曰호되 朝鮮人은 誠我邦의 貴客이라 하더라(유길준, 1895, p. 450).

이처럼 유길준 자신이 외국의 농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농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생생하게 확인하여 기술해 주고 있어 생동감이 넘친다. 우리나라에서 실천적으로 농교육이 시작된 것은 1909년이지만, 이에 앞서 19세기 말 우리나라 대표적 개화사상서(開化思想書)로 꼽히는 「서유견문」(1895)에서 구미의 농교육 실상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소개된 것은 학사적(學史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Hall은 평양에서 맹교육을 시작한지 10년 만에 농교육에도 관심을 보여 동료 선교사인 Rockwell의 도움으로 한국인 이익민 내외를 중국 체후에 있는 동료 선교사 Mills 부인이 운영하는 농학교에 보내 농교육을 연수케 하였다.²⁾ 당시 이익민 내외의 농교육 연수 정황에 대해 Hall(1909)은 “그들(이익민 내외)은 열심히 배웠으며, 한국어식 벨 시화법(Bell’s visible speech symbol)을 중국식보다 더 쉽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미 중국에서 일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와”(Hall, 1909, p. 81. 김승국, 변호걸, 2009, p. 16에서 재인용)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에 이익민 내외가 익혀온 농교육의 주된 방법이 Bell의 시화법(視話法; visual speech)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익민은 이 시화체계를 한국어의 자모음에 적용하여 농아동의 언어지도를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이 ‘시화법’은

Alexander M. Bell이 1840년대에 농아동의 구어지도를 위해 개발한 방법으로 지금은 농교육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아들 Alexander Graham Bell은 이 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구어지도를 위해 보조적으로 일종의 지문자체제(sign and manual alphabets)를 결합해서 활용했다(Bell, 1872; Moores, 2003에서 재인용). A. G. Bell은 평생 동안 전화기 발명으로 얻은 어마어마한 돈을 이 일(즉, 시화법의 보급)을 하는데 쏟아 부었다고 한다(Cleve, Crouch, 1989; 장진석 역, 2007).³⁾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다음 두 가지가 확인된다. 즉, 그 하나는 우리나라 농교육 성립기에 적용된 언어지도방법은 주로 구화위주였고, 특별히 Bell의 시화법에 강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농교육 성립은 실질적으로 이익민 일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교육은 Hall에 의해 맹교육에 이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Hall이 부각된 것에 가려져 실제로 이익민을 중심으로 한 그 일가의 활동이 평가 절하된 면이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농소녀 Alice Cogswell의 아버지인 Cogswell씨가 주선하여 T. H. Gallaudet으로 하여금 유럽에 농교육을 익혀오게 해서 1817년 농학교 교육을 시작했다. Gallaudet은 귀국시에 당시 파리농학교 농교사였던 Laurent Clerc을 데리고 와서 이 세 사람의 합작으로 농교육이 시작되었으나, 미국 농교육 역사에서는 유독 Gallaudet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농교육사에서는 Hall이 부각된 반면에 이익민과 그 일가의 노력이 Hall의 그늘에 묻힌 면이 있다. 이익민은 그의 부인과 함께 중국에서 약 일년간 농교육을 연수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는 중국서 농교육을 받은 그의 농조카를 동반해서 함께 평양에서 농교육에 헌신했다. 따라서 이익민은 한국의 Gallaudet이라 할 수 있다.

평양맹아학교는 동양맹·농교육 국제회의를 유치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14년에는 제1회 동양 맹·농교육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동아시아에서 그 위상을 자랑하기도 했다. 이 국제회의에는 일본, 중국, 한국의 맹교육과 농교육 대표자 약 20명이 참석하였는데, 농교육방법에 대해 “농아에 대한 담화교수법의 신사조”(중국농아학교 A. E. Carter)와 “농아에 대한 담화교수법의 실제”(체후농아학교교사 樂松梅)가 각각 발표되었다. 김칠관(1995)은 당시 Carter(1914)의 “담화교수상의 신사상”은 미국 클라크농학교에서 벨의 시화법지도가 어문법으로 바뀐 사실에 비추어, 예일(Yale, 미국 클라크농학교)의 어문법(word and sentence method)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두 발표 내용을 현재로서는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어쨌든 농아동에 대한 언어지도법으로 구어법에 기반을 둔 시화법과 어문법이 논의되었고, 그에 따른 실제적 성과가 제시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성립기의 한국 농교육에서는 당시 세계적 추세이기도 했던 구화법의 열풍에 강한 영향을 받은 가운데 구어중심의 농교육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농학생들의 상호간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수어가 사용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당시 Hall이 남긴 사진 장면에 의하면 농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수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정권, 김병하, 2002, p. 48, p. 52).

한편, 제생원 맹아부 아과(啞科)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사적으로 특별히 주목할 문건이 발견되지 않으며, 다만 1919년에 일본인 교사였던 아오시마(靑島)가 조선교육연구회 잡지 제43호에 ‘농아인 교육의 비견’이라는 제목으로 맹아부 아과(啞科) 교육의 실태를 보고하고 있는 정도이다(김병하, 2009). 그러나 조선총독부 제생원의 ‘조선맹아자통계요람’에 의하면 1920년대의 우리나라 농아인 실태를 알 수 있어, 이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정보가 된다. 1921년에 제생원에서 조사한 ‘조선맹아자통계요람’에 의하면, 전국에 맹인 8,792명, 농아인 6,847명으로 밝혀졌으며, 총인구(17,264,119명) 중 출현율은 맹인이 만명당 5.09명이고, 농인은 만명당 3.96명으로 나타났다(조선총독부제생원, 1922).

당시만 해도 농인보다 맹인의 출현율이 높아 지금과 비교가 된다. 여기서 농인의 출현율이 0.04% 정도인 것을 보면 심도청각장애 중심으로 보고되었고 대부분의 난청은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68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599명, 30대 1,398명, 40대 922명, 50대 462명, 60대 160명, 70대 이상 39명 순으로 나타났다. 오늘의 기준에 비추어 노인성 난청이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노년인구가 상대적으로 극히 적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인구 만 명당 평안북도가 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가 2.75명으로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1927년 농아인구 실태를 보면, 인구 만 명당 5.43명(0.054%)으로 6년 전의 통계보다 다소 높게 보고되고 있다(조선총독부제생원, 1928). 도별로는 평안남도가 만명당 7.36명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4.10명으로 가장 낮았다.⁴⁾ 전반적으로 남부지역보다 서북지역이 높게 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녀 성별로 보면 1921년 조사에서 남자가 4,816명(70.24%)이고 여자가 2,031명(약 30%)이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2.37배나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 1927년 조사에서도 남자 7,270명(70.58%)이고 여자가 3,030명(29.42%)이어서 역시 남자가 2.40배나 높게 나타났다. 지금에 비해 그 당시에는 청각장애가 남자 쪽에 더욱 높게 편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후 제생원 맹아부 부장이던 和久正志(1935)는 일본과 비교하여 농아의 실청(실관)원인을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대별해서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선천성 농의 주요원인으로 지세관계, 혼인관계, 유전, 알콜중독, 매독유전에 의한 것 등을 들고 있다. 통계적으로 산악지방에 선천성 농이 많고 혈족결혼 또는 유전으로 인한 출현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생원 맹아부 아과(啞科) 농아생의 원인에서는 선천성 중 혈족결혼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는 것은 거의 없으며, 후천성 농의 원인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 내역으로 뇌막염이 2할(20%), 그 외에 마진,

성홍열, 장티푸스 등 열병에 의한 것이 약 3할이나 되고, 중이염의 치료를 잘못하거나 등한시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농아자 발생대책으로 일반민중의 위생사상 향상, 육아사상의 발달, 결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금주 또는 절주사상의 보급을 제안하고 있어 주목을 끌게 한다(和久, 1935, p. 109-112).

당시 농아인의 직업현황 조사보고(조선총독부제생원, 1921, 1928)를 보면, 1920년대에 우리나라 농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선맹아자통계요람(1922, 1928)에 나타난 농아인의 직업분포를 보면, 농업이 58.9%(4,035명)로 과반을 넘고, 무직이 32.1%(2,201명), 날품노동이 2.1%(141명)로 나타났다(조선맹아자통계요람, 1922). 한편, 1927년 조사에서는 무직이 47.3%(4,869명)로 가장 많고 농업이 41.4%, 일용노동 1.8%, 피용(被傭) 1.6% 순으로 나타났다(조선맹아자통계요람, 1928). 이외에도 극소수의 농인들은 어업, 재봉, 수세공, 숙박업, 석공, 이발업, 직공, 목공, 금은세공, 토기제조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당시 농아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론, 농업중심 사회에서 제조업의 수준과 상황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일제치하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한국인에 의해 주체적으로 농교육이 추진되어 오기도 했다. 평양에서 이창호(李昌浩) 목사는 마펫트(Moffett) 선교사가 하던 사업을 이어 받아 1935년에 평양광명맹아학교(平壤光明盲啞學校)를 설립하여 역시 맹교육과 함께 농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이 학교는 통학제와 기숙제를 병행하였으며, 처음에는 수화법 위주로 지도하였으나, 후에 구화지도법을 적극 도입하기도 했다. 당시 교사들은 모두 한국인으로서 특히 사명감이 투철했다. 특히, 교사양성과 그 자질향상을 위해 일본 유학생 김용목을 동경농아학교 교원양성과정코스에 파견하는 등 농교육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설립자인 이창호 목사는 1896년 평안남도 용천군 입안면에서 출생하여 1935년에 평양광명맹아학교를 설립한 이래, 6.25 동란 때까지도 이 학교를 이끌어 왔다(김병하, 2009).

광복직후 일제치하의 제생원 맹아부는 일본인들이 물러감에 따라 한국인 교사와 서무직원이 접수하였다. 제생원 맹아부 수석훈도였던 윤백원(尹伯元)이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고, 교명은 국립서울맹아학교로 개칭되었으며,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관할로 6년제 초등교육을 실시하였다. 광복이 되자 일본어 대신 한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했으므로 한글 지문자의 창안이 절실했다. 이에 국립서울맹아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윤백원(尹伯元)은 1946년 9월에 한글지문자를 창안하기에 이르렀다. 한글지문자의 창안 필요성과 그 과정에 대해 윤백원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문자의 창안을 내면서》

농아자를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널리 연구한 끝에 수화의 단점을 완전히 보충하여 우리 말을 할 줄 알며 우리글을 읽을 줄 아는 보통사람의 말 세계에 다가설 수 있는 농아자를 만들

수 있는 指文字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다섯 손가락을 가지고 24자의 모음과 자음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었다. 기숙사생 1명을 집마다 데려다 놓고 나와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며 생활을 해가면서 6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 현 문자를 창안하게 되어 1946년 9월 1일 신학기부터 실제 수업을 개시하여 구화와 수화를 겸하여 지도한 끝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 그로부터 전 학년에 사용하도록 하며 금일에 이르렀다. 참으로 농아자로 하여금 평생의 복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윤백원, 1946).

한글지문자는 윤백원 교장이 창안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ㄱ, ㅅ, ㅇ, ㅋ”이 수정된 것 외에는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지문자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글지문자가 창안됨으로 고유명사 등에 대한 수화의 표현 한계가 극복되고 구화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병행되면서 청각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에 훨씬 도움을 주었다(김병하, 2009).

광복후 민간인으로서 농교육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이영식(李永植; 1894 ~ 1981) 목사였다. 그는 광복기념사업으로 1946년 대구맹아학원을 설립하여 농생 10명에게 대구 서성로 소재 중앙교회에서 처음으로 특수교육을 시작한 이래, 이듬해에는 6학급의 농 초등부과정을 설립하였다. 1949년 11월에 이영식은 국회의사당에서 당시 신익희 국회의장의 배려로 의장 단상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장애아동 교육가능성을 직접 시연해 보였다. 이 때 국회의원들은 즉석에서 기금을 모아 제공하는 한편, 이들 장애인들을 국가에서 보조해 줄 것을 결의하였다(김병하, 2007).

1956년에는 대구맹아학교가 모체가 되어 이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사회사업대학(지금의 대구대학교 전신)을 설립하였으며, 이 대학은 1961년에 정규 4년제 대학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수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였다. 특히 특수교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설립의 과정에서 이영식의 장남 이태영(李泰榮; 1929 ~ 1995)은 그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는 1961년 11월에 한국사회사업대학 제2대 학장으로 취임한 이래 우리나라 특수교육학계의 리더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영식의 차남인 이기수(李基洙; 1930 ~ 2003)는 1953년 헬렌 켈러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보스턴대학교에서 특수교육(맹교육)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1955년에는 Gallaudet대학에서 농교육을 전공하여 농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미국에서 농교육을 수학한 사람으로 1961년에는 Syracuse University에서 특수교육(농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그는 1959년에 에티오피아 국왕 초청으로 그곳 왕립특수학교 교장으로 봉직하고 1981년에는 뉴욕주 종신 교육장 자격을 취득하는 등 한국인으로서 특별한 특수교육 경력을 지니고 있다.⁵⁾ 이처럼 이영식-이태영-이기수로 이어지는 특수교육 활동은 한국 특수교육의

학사(學史)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1950년대 만해도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교육에 대한 학술논문이나 자료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농교육) 분야 최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1954년 이화여대 대학원에 제출된 최정선의 “농아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있으나, 그 원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후 이기수(1957)는 Wayne State University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한국 특수교육발달사”를 제출하여 초기의 우리나라 맹교육과 더불어 농교육의 역사와 그 현상을 소개한 바 있다(김병하, 2009). 또, 대구에서 한국사회사업대학(1957)은 정규대학으로 특수교육과를 인가 받지 못했으나, 이 분야의 지도자양성을 위해 특수교육개론(4학점), 점자지도(4학점), 구화지도(4학점)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40년사 편찬위원회, 2002, p. 61).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195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농교육은 학사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태동기’ 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농교육이 실천적으로 성립되기 이전에 19세기말 개화사상가의 저술을 통해 구미의 농교육 실상이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전술한 것처럼 유길준은 「서유견문」(1895)의 ‘아인원’ (啞人院)에서 구미의 농교육 실상과 그 성과를 비교적 소상히 알려주고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서 농교육의 성립과 그 전문성은 한국인에 의한 주체적인 노력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익민 내외는 1908년 중국에서 외국선교사가 운영하는 농학교에서 약 1년간 농교수법을 익혀와 평양에서 처음 농교육을 시작하였고, 평양광명맹아학교를 설립(1935)한 이창호 목사는 김용묵으로 하여금 동경농아학교 교원양성과정에서 농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익혀오게 해서 농교육을 담당하게 했다.

셋째로 1920년대에 ‘조선맹아자통계요람’ (1922, 1928)을 통해 전국적인 농의 출현실태를 지역별·연령별·성별에 걸쳐 보고하였고, 농의 원인과 농인들의 직업분포까지 소상하게 보고 한 것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청각장애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당시농인들의 지위를 짐작케 하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넷째로 광복후 초대 서울농아학교 교장이었던 윤백원은 한글지문자(指文字)를 창안하여 청각장애교육에서 수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끝으로 국내에서 농교육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이기수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Gallaudet대학에서 농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후에 Syracuse University에서 농교육행정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은 괄목할만하다. 이런 학문적 배경을 지닌 그가 끝내 한국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펍 아쉬운 점이 있다.

Ⅲ. 성립기(1960년대)의 청각장애교육 연구

광복이후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민간 독지가들이 중심이 되어 경향각지에서 농교육이 실천되었으나,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학사적으로 특기할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국립서울농학교의 경우 윤백원 교장이 한글지문자를 고안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1949년 미군정 시절에 Olive Whildin 고문관이 미국의 농교육(구어지도) 자료를 번역하여 사용하게 했으나, 발성과 문형지도가 우리말의 어법과 맞지 않아 성과를 얻지 못했다(장진권, 2009). 그러나 서울농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농학교 교사양성을 위해 1950년대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1954년에 서울농학교에 1년제의 보통사범과와 3년제의 사범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1964년에 서울농학교에 고등과가 신설되면서 폐과되었다. 이것은 정규 대학과정에 의한 특수교사양성체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단기양성체제로 사범과 출신(농인)이 68명, 1년제 보통사범과 출신이 230명으로 모두 298명이 양성되었다.⁶⁾ 당시 농학교 보통사범과와 사범과에서 개설한 농교육 과목은 수화, 구화, 농교육사, 교육실습 등이 있었다(서울농학교, 1993). 위의 교사양성과정 과목을 보면, 농교육 현장에서 구화와 수화가 병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농교육론 대신에 ‘농교육사’를 개설한 것은 그 만큼 농교육의 전반적 이해를 위해 역사적 이해가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1960년대에 접어들며 대구에서 한국사회사업대학은 마침내 4년제 정규대학과정에 의한 특수교사양성과정을 인가받아 설치하게 된다. 전술한 것처럼 한국사회사업대학은 1956년에 그 전신인 한국이공학원을 설립하여 실제로 맹교육과 농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해 오던 중, 마침내 1961년 우리나라 최초로 4년제 대학에 단설학과로 특수교육과(입학정원 20명)를 인가받아 맹교육과 농교육전공으로 나누어 중등특수교사를 양성하게 되었다. 학과 개설 당초 특수교육(농교육) 관련 강좌로 특수교육개론(4), 농교육(4), 언어치료(2), 농심리(4), 특수학급경영론(4), 구화교육법(4), 특수교육행정(4) 등이 편제상에 개설되어 있었으나,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⁷⁾ 당시에 이태영은 강의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특수교육 분야 저술로 「특수교육개론」(1963)을 냈다. 이 저서의 제2편 특수교육의 (영역별)분화에서 ‘제2장 농 및 난청아교육’ (p. 105-119)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농교육의 역사를 개관하는 가운데 이태영은 우리나라 농교육의 성립과정에서 강한 영향을 미친 ‘시화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미국 크라-크 농학교는 벨(A. G. Bell)의 만국시화법(International Visible Speech)에 의해서 아동이 짜증을 느끼기 쉬운 음운 연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언어성적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3년 후 발음에 중점을 둔 요소법(element method)을 버리고 어문법(word and

sentence method)을 채택하고 독화에 의한 언어지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이태영, 1963, p. 106).

위에서 보면, 시화법의 구화지도로서의 한계 때문에 발음 중심의 ‘요소법’ 대신에 전체적으로 독화에 도움을 주는 ‘어문법’으로 변형하여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60년 당시 세계 농학교 설치상황을 소개한 것을 보면 미국 378개, 소련 275개, 일본 103개이고 대한민국과 북한은 동일하게 8개교로서 남북을 합치면 16개교가 된다(이태영, 1963, p. 106-108). 한편, 난청아 교육에 대해 “보통학급에서나 난청학급에서 보통아와 같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독화법이나 보청기의 도움으로 보통아와 함께 학습을 진행시킨다.”(Ibid, p. 115)고 하여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의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무렵 안태운(1963)은 ‘농교육 및 심리’ (미간행, 유인물)를 농교육 강좌운영에 필요한 강의 자료로 개발하여, 일종의 교재로 활용했다.

이태영의 「특수교육개론」에 이어 정희경외 6인은 <현대교육실천총서10>에서 「특수아교육」(1963)을 집필하였는데, 이 책에서 홍기돈(특수교육연구회)은 ‘농아와 난청아’ (p. 167-185)를 집필했다. 여기서 그는 청력측정기로 측정한 실청도(失聽度)를 100에서 뺀 나머지를 ‘청력’(聽力)으로 규정하여, 청력 25% 이하인 자를 중농(重聾), 26 ~ 50%인 자를 경농(輕聾)이라 하고, 51 ~ 85%인 자를 난청(難聽)으로 분류했다(홍기돈, 1963, p. 168). 그는 농아동에게는 그 교육능력에 핸디캡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1차 handicap은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고, 2차 handicap은 국어사용(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불능이고, 3차 handicap은 국어사용 불능에 따른 여타 발달의 어려움”(Ibid, p. 180)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농(deaf)은 결코 장애가 아니다.”는 농학(Deaf Studies)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이어 그는 농아의 언어지도 방법으로 “구화법, 수화법, 지화법, 청화법, 청음법, 병용법”(Ibid, p. 181-184) 등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상적으로는 구화법을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인정하나, 현실적으로는 구화·지화·수화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Ibid, p. 185).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한국장애아동 조사보고서’(보사부, 한국아동복지위원회, 1961)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는 77,903명(전체 아동인구 1천명 중 6.6명; 출현률 0.66%)으로 보고되었다. 그 중 농아(聾啞)가 8,670명, 농(聾)이 6,325명으로 나타나, 1921년의 전국 인구 전수조사에서 농아인이 6,847명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가 된다. 그리고 1961년의 농아인구 중 3,045명이 문맹으로 나타나 전체 농아 중 약 35%가 된다. 그리고 당시 특수학교(농학교) 재학생 수는 불과 88명이었다. 농아(聾啞)의 가정생활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였을 때, 하(下)가 6,958명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농아들의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농에 관한 학술 발표로 이달호, 신흥수, 김기복 등(수도의대 이비인후과팀, 1961)은 1960년 대한이비인후과학술대회에서 “한국인 농아(聾啞)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당시 농학교 재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순음 청력검사를 최초로 실시한 결과 양이(兩耳) 완전 농은 32.6%이고 잔청(殘聽)을 가진 자가 56.9%로 그 역치가 80 ~ 90dB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1962년에 한국난청협회를 창설한 양석성(1965)은 「대한의학협회지」(8권 2호)에 “난청과 농아에 대한 당면문제”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당면문제로 청각학자의 양성, 청각장애아의 치료·예방·재활에 필요한 연구와 그 지원을 제안하고 있어 주목을 끌게 한다. 한편, 박당우(1963)는 “농아자에 대한 사회학적 조사”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였다. 이 논문은 전국의 농학생 574명을 대상으로 조사 보고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1) 농의 상태에서 ‘약간 말을 할 수 있다’가 36.7%, ‘말을 전연할 수 없다’가 61.32%이다. (2) 농의 원인은 선천성이 32.58%, 원인불명이 21.43%, 열병 8.54%, 뇌막염 8.36% 순이다. (3) 농의 발생 시기는 선천성이 32.58%, 3세 이하가 42.68%로 나타났다. (4) 근친자 중에 농인 유무를 알아 본 결과 94.42%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의 농에 관한 과학적 연구로는 이과적(耳科的) 측면에서 농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력측정과 사회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1961년 결성, 초대회장: 이영식)는 1962년부터 현장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초기에 김철관(당시 인천농화학교 교사)은 “리들을 중심으로 한 농아의 언어지도”(1964), “생활을 중심으로 한 농아의 작문지도”(1965), “농아동의 정서반응 소고”(1966) 등을 발표하여 연속해서 입선하였다. 농교육 쪽의 연구가 대학보다 초기에는 현장교사들 중심으로 수행된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무렵 한국사회사업대학 특수교육과에서 결성한 ‘특수교육학회’(학회장: 배연창)에서는 1963년에 「특수교육과학」(特殊教育科學) 창간호를 발간했다. 이 학회지에 이태영과 원영조(1963)는 “농아의 평형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아동의 평형능 발달에 교육훈련이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그 후 한국사회사업대학 특수교육연구소(1963년 설립)에서는 ‘특수교육연구’ 제1집(1968)을 간행하였는데, 이 논문집에서 조병수(대구영화학교)는 “청능교육의 효과적 지도를 위한 고찰”을, 이계택(충남농아학교)은 “인간경험의 통합적 형식으로서의 언어”를, 그리고 문미자(대구영화학교)는 “농학교의 효과적 율창지도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하였다. 특히, 이계택은 농인교사로서 경험을 통해 언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의 접촉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그는 “오늘날 농교육의 실패는 근본적으로 적절치 못한 언어교육방법에 그 원인이 있다.”(이계택, 1968, p. 65)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특수교육연구’ 제2집(1969)에서 조병수, 문미자, 조정원 등(대구영화학교)은 “농아동의 기초발음지도에 관한 일 연구”를

초등 저학년 농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처럼 대학 연구소 논문집에도 초기에는 농학교 교사들이 수행한 현장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1960년대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적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초기에 청각장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각학적인 측면에서 농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력측정에 관심을 보였고, 보건의학 내지는 사회의학적인 측면에서 청각장애 출현실태에 관한 보고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보고서나 연구는 주로 이비인후과 의사들과 보건의학 쪽 연구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둘째로, 60년대 초에 접어들어 대학에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당시에는 맹전공과 농전공으로 나누어 전공과정을 운영했으나, 농교육에 대한 체계적 연구 성과나 저술이 나오지는 못했다. 다만 이태영(1963)과 정희경 등(1963)에 의한 특수교육 개론서에서 부분적으로 농교육과 난청교육이 별도의 장으로 다루어지는 정도였고, 강의 자료로 ‘농교육 및 심리’(미간행 유인물)가 활용되었다.

셋째로, 초기에 청각장애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농학교 교사들에 의한 현장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에 의한 연구주제는 구어지도와 청능훈련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부가적으로 농학생들의 문장지도에 관심을 보였다. 이로써 당시 농교육 현장에서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언어지도 방법론이 어느 쪽으로 경도되어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이계택(1968)은 농인 교사로서 수어에 의한 농아동의 ‘경험의 접촉효과’를 이론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당시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IV. 전개기(1970년대)의 청각장애교육 연구

여기서 70년대의 청각장애교육 연구를 ‘전개기’로 명명하였으나, 이것은 편의상 구분에 불과하고 어떤 면에서는 60년대 성립기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청각장애교육 연구는 여전히 ‘초창기’(草創期)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접어들며 청각학(audiology)에 대한 관심의 제고와 더불어 청각장애아동 출현실태조사가 기초연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규식 등(1970, 1971)은 일본특수교육학회에서 우리나라 난청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한국 학동기 아동들에 대한 난청실태조사(제1보)” (이규식, 이태영, 김두희, 1971)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내 27개 초등학교 재학생들(43,815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가진 난청아동의 출

현률은 0.58%이고, 난청학급 대상으로 분류되는 40 ~ 75dB 청력손실을 가진 아동은 0.13%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청력손실정도별 실태는 경도(30dB 이하)가 전체의 65.83%, 경계선급(40dB 이하)이 27.30%, 중등도(40 ~ 60dB)가 4.57%, 고도(60dB 이상)와 최고도(75dB 이상)를 합쳐 2.28%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난청 유형별 실태는 전음성이 67.3%로 가장 많았고 감음성이 13.5%, 혼합성이 19.1%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 농학교 재학생을 제외하고 일반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출현실태를 밝힌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 후에도 이규식 등(1972, 1973)은 난청실태조사를 도시와 농촌 지역별, 연령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대구영화학교(농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잔존청력을 확인한 결과 75dB 이하의 상당한 잔청을 가진 학생이 약 30%나 되어 “조기발견과 보청기 착용에 의해 일반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학생들도 수화에 의존하는 농학생을 만들었다”(이규식, 김두희, 1973, p. 61-62)고 비판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아 출현실태를 청력측정 결과에 의거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데에 당시로서는 중요한 의의가 있었고, 이것은 이후 청각장애아 교육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우리나라 농교육계에서 대표적인 구화주의자로 일컬어지는 한국구화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인 최병문(1970)은 「구화교육」(한국구화학교 발행)이라는 저술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펴냈다. 그는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분야에서 구화주의자로서 일관된 교육실천을 해 오는 가운데 ‘이론과 실체가 혼연일체가 된 책’으로 이 저술을 냈다. 그는 이 저술에서 구화교육에 바탕을 둔 교과교육의 운영안, 농아동을 위한 생활기본 어휘, 청각장애아 언어교육을 위한 문형체계, 감각훈련, 발성체계, 발성지도의 실제안, 독화지도안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손짓은 구화교육의 장벽이니, 손짓은 보지도 배우지도 말아야 한다.”(최병문, 1970, p. 188)고 강조한 것은 구화주의자로서 그의 신념을 표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농교육자로서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농학교 교사로서 오랜 경험을 쌓은 신상식(1972)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한국 농교육에 대한 고찰: 역사와 현황을 중심으로”를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농교육의 성립과정을 학교교육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논의하고, 1970년대 초 우리나라 농교육 현황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197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특수학교는 42개교(맹학교 13개, 농학교 19개, 정신지체학교 8개, 지체부자유학교 4개교)로 그 중 농학교가 전체의 43.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19개 농학교의 언어지도 방법별 분포를 보면, 구화법 8개교, 수화법 3개교, 병용법 8개교로 전반적으로 ‘구어중심’의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교육의 문제점을 판별기준, 농학교 설립과 시설, 농학교 교사, 농교육의 정책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농교육을 역사, 현황, 문제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논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병하(1973)는 “18·9세기 구미 청각장애아 학교교육의 성립과정과 방법논쟁에 관한 사적 연구”를 통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미국의 농교육 성립과정을 논의하고, 학교교육 성립과 더불어 제기된 농교육에서 언어지도 방법논쟁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농교육에서 역사적으로 방법논쟁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수행되었다. 이어 김병하(1974)는 일찍이 Mackie 등이 개발한 농학교 교사의 수행능력 목록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우리나라 농학교 교사들에게 그 중요도를 평정(Likert scale)토록 하였다. 그 연구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 농학교 교사들은 농학생의 의사소통 기능 증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고, 농교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수행능력에 있어 전반적으로 지식보다는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김병하(1975)는 교사교육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구미 청각장애아 교사양성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비교연구”를 문헌고찰 중심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원영조, 신상식, 류상덕 등(1974)은 농학생들의 글짓기 작품을 통해 농학생의 사용어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농학생들의 사용어휘는 1,085개로 일반아동에 비해 많이 빈약했으며, 품사별로는 명사가 약 60%로 월등히 높다(동사가 약 18%, 형용사 약 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농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는 347개로 극히 제한적임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농아동의 문해능력에 대한 최초의 기술적(記述的)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어 원영조(1975)는 농교육 연구 분야에서 비교적 앞서 통합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청각장애아 통합교육의 성립과 아동요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서 통합원칙으로 ‘가능·최대한의 통합과 필요·최소한의 분리’를 제기하여 오늘날 Inclusion으로서의 (완전)통합과 시대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청각장애아의 요건으로 인성과 사회적응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능력, 지능, 청력손실정도 등을 그 중요도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요건으로 인성과 사회적응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영순(1975)은 우리나라 16개 농학교 재학생(1,676명)에 대한 사회학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 청각장애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반가정보다 일등급 낮았고, (2) 실청연령은 3세 이하가 71%이고, (3) 청각장애아의 약 7할이 조산원의 도움 없이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 청각장애의 원인은 복합적 증례가 많아 단일 질병에 의한 것은 38.85%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아동의 교육적 배경은 가정의 이해부족과 무성의 위에 학교환경의 불비와 교사의 자질미숙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교원자질 향상, 복지제도 확립,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김영순,

1975, p. 48)고 제안하고 있다. 석동일(1976)은 전체 농학교 중 보청기 착용율이 비교적 높은(약 28%) 7개 농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청기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설문조사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70년대 중반 당시에 우리나라 청각장애학생들의 보청기 사용시기가 매우 지체되었고, 그 선택도 임의적·한시적이었으며, 활용방법과 관리도 부실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야기한 주된 요인으로 부모의 이해와 인식 부족, 조기진단 요건의 불비, 검사와 훈련프로그램의 불비, 전문가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70년대 당시 우리나라 청각장애학생들의 의료적, 청각적, 교육적 지원의 실상을 잘 반영한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규식은 그동안의 청각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병문의 「구화교육」(1970)에 이어 「청각교육: 이론과 실제」(1977)를 백준기(이비인후과 의사), 권요한(현재 창원대학 교수) 등과 함께 공동 저서를 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청각학적인 측면에서 난청아 교육을 다루었고, 2부에서는 언어장애아지도 문제를 두루 다루었다. 이 저서에 이어 비슷한 성격의 책으로 이규식, 권요한, 김갑림 등(1979)은 다시 「청각·언어장애아교육」이라는 저서를 냈다. 이 저술에서도 제1부는 청각장애아지도, 제2부에서는 언어장애아지도, 제3부에서는 각각 개론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이때까지 만해도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아교육’이라는 저술은 따로 나오지 못한 채, 난청아지도 혹은 교육이라는 측면의 청각학적 저술이 먼저 선을 보였다.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청각장애아의 심리 문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권요한(1977)은 “청각장애아의 지적·정서적 특징에 관한 연구”를 통해 K-WISC와 Vineland 사회성숙측도(social maturity scale)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밝혔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청각장애학생(10~12세)의 인지능력은 일반아동과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12세에서 일반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회성숙도검사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청각장애아동들이 일반아동에 비해 지체되는 것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는 연령과 대상 아동수의 제한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청각장애아 발달 특성에 관한 초기의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김병하, 박무식(1978)은 청각장애아동에게 BGT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Koppitz의 발달적 체점 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7세 이상 학령기 청각장애아동의 시지각-운동지각 발달은 일반아동 규준과 차이가 없으나, 청력손실 시기가 그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였고, 정서적 지표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이 상대적으로 외현적 공격성과 충동성, 계획성의 결여 및 불안정 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김병하(1979)는 미국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농학교 교사대표(학교별 1명씩) 집단을 대상으로 1979년 2월 2일에서 3일 양일간에 걸쳐 ‘청각장애아 심리검사연수회’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회에서는 인물화검사(여광응), K-WISC 동작성검사(권요한), 히스키-네브라스카 학습

적성검사(김병하), BGT검사(박무식), 표준행렬검사(Standard Progressive Matrices, 김병하)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이들 검사도구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검사도구와 해설 자료를 특별히 개발하여 제공해 주기도 했다.

한편, 한국특수교육학회에서는 1977년에 「특수교육논총」이라는 제호로 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했다. 현재는 한국특수교육학회에서 「특수교육학연구」라는 제호로 대한특수교육학회의 학회지 지령까지 흡산하여 44권 3호(2009년 12월 현재)까지 발간해 왔다. 이 학회지의 창간호에 김병하, 이규식(1977)은 “한국의 청각장애아 교원교육체제 및 교육과정의 모형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각장애아 교사양성 체제는 4년제 대학과정을 기초과정으로 하되, 일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1~2년제 현직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각장애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요 수행능력(competencies)으로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기능 개발,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능력,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 학제적 팀 멤버로서 교사의 역할, 통합교육의 지원과 자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김병하(1979)는 미국 연수결과의 보고로 “캘리포니아 농교육에 대한 델파이(Delphi)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연구가 실시된 시점 기준으로 12년 후가 되는 1990년대에 캘리포니아 농교육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 농교육전문가(행정가 40명, 대학교수 20명, 중진교사 40명, 기타 전문가 10명)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는 (1) 언어지도방법론에 있어 구화와 전체법(totalism) 간에 내적 질서가 확립되었으나, 양방법간의 갈등관계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았고, (2) 청각장애아의 통합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통합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평가하기 위한 표준이 개발될 것으로 내다보았고, (3)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적절한 공교육 기회가 보다 세련되게 확충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상의 지적들은 오늘의 한국 농교육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규식(1979)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청각장애아에 대한 임상청각학적 연구”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난청아동의 출현빈도, 난청의 발생원인, 난청아의 청취능력 등을 청각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학사적(學史的) 측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70년대 중반에 청각장애교육학회(연구회)의 결성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래의 취지대로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75년 말에서 1976년에 걸쳐 최병문, 이규식, 임호익, 김영순, 김병하 등이 중심이 되어 서울, 부산, 대구를 순회하면서 학회(연구회)의 결성을 위해 때로는 새벽녘에까지 열띤 토론과 협의를 거치는 노력을 하였으나, 끝내는 결실을 얻지 못했다. 그 후에 이규식은 독자적으로 1978년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내에 ‘난청과 언어장애’ 연구부를 만들어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후에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발전시켰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1970년대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는 학사적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70년대에 접어들면서도 6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청각장애교육 연구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청각학적인 측면에서 난청실태조사 연구가 주요한 연구 관심사가 되었다. 이것은 교육 및 심리연구가 본래도에 오르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의료적 측면의 영향을 받은 청각학이 강하게 부각된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당시에 이규식은 우리나라에서 청각학 분야의 중심 역할을 했다.

둘째로, 이 무렵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 청각장애아동의 구화지도(최병문), 문해능력(원영조, 류상덕), 통합교육(원영조), 교사교육(김병하) 등에 걸친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70년대 초반에는 역사연구로 우리나라 농교육의 역사와 현황(신상식), 그리고 구미의 농교육 방법논쟁(김병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셋째로,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청각장애아의 발달문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가 심리측정 중심으로 수행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연구로 권요한(1977)은 청각장애아동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의 특성을, 김병하, 박무식(1978)은 청각장애아동의 시지각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특성 등을 밝혔다. 그리고 70년대 말에는 현장 농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아동의 심리측정을 위한 검사도구 연수회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기도 했다.

넷째로, 70년대 중반에 학계와 현장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청각장애아교육학회(연구회) 창립을 위한 일련의 협의가 최병문, 임호익, 이규식, 김영순, 김병하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나,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함으로써 후학들에게 그 짐을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농교육이 도입·성립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소위 ‘초창기’(草創期)에 해당되는 청각장애교육 연구를 학사적(學史的) 측면에서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기간의 청각장애교육 연구에 대한 학사적 시대구분은 19세기말 농교육의 도입 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를 태동기(胎動期)로 잡고, 이어 1960년대 말까지를 성립기(成立期)로 보고, 마지막으로 1970년대를 그 전개기(展開期)로 설정하였다.

첫째로, 태동기에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아교육에 대한 최초의 문건으로 유길준은 「서유견문」(1895)에서 구미의 ‘아인원’(啞人院)을 소개하고 있으며, 1909년

농교육 시작은 이익민 일가(그의 처와 조카)의 실천적 참여에 의해 성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농교육 성립은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농교육 방법도 처음에는 미국의 시화법(視話法; visual speech)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일제치하의 제생원(濟生院) 맹아부(盲啞部)에서 행한 농교육은 교육내용과 의사소통 방법 등에 걸쳐 일본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학사적 측면에서 '조선맹아자동계요람'(朝鮮盲啞者統計要覽; 1922, 1928)에서 전국적으로 농의 출현실태, 농의 사회과학적인 정보, 직업분포 등이 객관적으로 보고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광복 후에는 서울농아학교 초대교장인 윤백원이 한글지문자를 창안(1946)하여 농학생들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줌으로써 농교육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1950년대에 이기수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Gallaudet 대학에서 농교육을 수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농교육 교사자격증까지 취득하여 주목을 끌게 한다.

둘째로, 1960년대 성립기의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1961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사회사업대학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농교육전공의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청각장애교육 연구는 주로 청력측정에 의한 난청실태와 보건의학 내지는 사회과학적인 기초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는 중에도 특수교육개론서(이태영, 1963, 정희경 등, 1963)에 농교육과 난청교육이 부분적으로 다루어 졌고, 농학교 교사들에 의해 현장연구 형태로 구어지도와 청능훈련, 문장지도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기간의 현장연구 가운데 농인교사인 이계택(1968)이 '경험의 집축효과'를 통한 농아동의 언어획득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로, 1970년대 전개기의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는 초기에 여전히 청각학적인 측면의 난청실태 조사보고(이규식 등)가 그 주류를 이루었다. 현장에서 최병문은 구화지도와 교과교육과 문형체계를 연관지워 「구화교육」(1970)이라는 저서를 펴내 주목을 끌게 했다. 원영조(1975)는 통합교육을 위한 청각장애아동의 요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우선 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통합교육 실천에 따른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청각장애아동의 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들(김병하, 권요한)이 행해지기 시작했으며, 농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연수회도 실시되었다. 70년대에 와서 청각장애교육 연구가 청각학적 연구, 언어지도와 문해능력, 농교육 역사, 교사교육, 통합교육, 심리적 연구 등에 걸쳐 60년대에 비해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사적으로 볼 때, 청각장애교육 연구 활동은 8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연구 주제와 방법도 훨씬 풍부해졌다. 끝으로 70년대 중반에 최병문, 이규식, 임호익, 김영순, 김병하 등이 중심이 되어 한국청각장애아교육학회(연구회) 결성을 진지하게 협의했으나, 끝내 그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 역사에서 1970년대 말까지의 연구들은 소위 초창기의 선도적 연구 성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한국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學史)에서 새 길을 닦는 일을 해냈다. 1980년대 이후 청각장애교육 연구는 길이 트여 특유의 질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그간 앞만 보고 질주해온 나머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볼 겨를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한국청각장애교육 정책성 정립이 절실한 때이다. 이제 한국청각장애교육 연구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문제의식과 방법에 천착하여 다시 길을 다듬어야 할 때이다.

1) 물론 이보다 앞서 구한말 신사유람단의 귀국 보고서인 문견사건(聞見事件, 1881)에 일본의 맹아원에 대한 기록이 간략히 보고되고, 그 후 한성순보(漢城旬報, 1884.3.8.)에서 ‘맹아원’(盲啞院)에 대한 기사가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학교로 농인과 맹인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음을 간략히 사실적으로 안내하는 정도이다(김병하, 박경란, 2009).

2) Mills 부인이 운영한 농학교는 1887년에 중국에서 설립한 최초의 농학교로 당시 중국에서는 啓音學校로 명명했으며, 설립 초기에 A. G. Bell의 시화법(視話法; visual speech)을 기초로 한 언어지도법을 도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傳逸亭 외, 1989, p. 19. 인천성동학교40년사, 1995, p. 62에서 재인용).

3) 「미국 농사회의 변천사」(Cleve, Crouch, 1989)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를 ‘수어에 대한 박해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A. G. Bell은 말과 독순술(말읽기) 운동에 그 자신을 바쳤다. 그는 농인들은 구어법을 사용함으로써 수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청인들처럼 말할 수 있고, 청인사회의 모든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다(장진석 역, 2007, p. 199).

4) 참고로 도별 실태를 보면 경기도 4.10(출현율; 0.041%)명, 충청북도 5.07명, 충청남도 6.62명, 전라북도 5.10명, 전라남도 4.83명, 경상북도 4.87명, 경상남도 5.97명, 황해도 5.52명, 평안남도 7.36명, 평안북도 6.20명, 강원도 5.02명, 함경남도 5.27명, 함경북도 6.20명 등이다(조선총독부제생원 조선맹아자통계요람, 1928).

5) 미국에서 이기수의 특수교육 유학생들과 그 후의 활동은 지금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기수 선생에 대한 위의 내용은 필자가 그의 미망인 유임순 여사와의 메일 교신(2009)과 미국에서 여사가 직접 대구대학교에 보내 온 이기수 선생 관련 자료 가운데 농교육 관련 활동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다.

6) 당시 1년제 보통사범과는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훈련 과정이며, 3년제 사범과는 농학교 학생 가운데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자체적으로 3년제의 과정을 거쳐 농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했다(김병하, 1999).

7) 실제로 연구자(김병하)가 재학한 1965 ~ 1969년 동안 한국사회사업대학 특수교육과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191학점으로 그 중 교양 45, 교직 35, 전공 114(특수교육, 교과전공)로 이 가운데 특수교육(농교육)에 대한 강좌로는 특수교육개론, 농교육, 농심리, 언어장애, 특수교육행정, 특수학급론, (특수교육)원서강독, 교육실습, 졸업논문 등이 개설되었다. 필자의 경우 당시 졸업논문은 이진근 학우와 공동으로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하였다(자료: 대구대학교 성적증명서, 2009. 12. 14. 발행).

참고문헌

- 권요한 (1977). 청각장애아의 지적·사회적 능력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사회사업대학 대학원.
- 김병하 (2009).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한국청각장애교육100년사**. 서울: 한국청각장애교육 100주년 기념 사업회, 192-213.
- 김병하 (2007). **대구특수교육사**. 경북: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병하 (1999). **특수교육교사론**. 경북: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병하 (1973). 18·9세기 구미 청각장애아교육의 성립과정과 방법논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논문집**, 4, 127-149.
- 김병하 (1974). 한국 농학교 교사의 자질분석. **특수교육과학**, 4, 43-61.
- 김병하 (1975). 구미 청각장애아 교사양성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특수교육과학**, 5, 3-29.
- 김병하, 이규식 (1977). 한국 청각장애아 교원교육체제 및 교육과정의 모형연구. **특수교육논총**. 한국특수교육학회 논문집, 1, 35-54.
- 김병하, 박경란 (2009). 유길준 「서유견문」의 한국 특수교육사적 함의.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8(2),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65-87.
- 김병하, 박무식 (1978). 청각장애아의 시각-운동지각 발달 및 정서적 특성. **특수교육연구**, 6, 5-26.
- 김병하 (1979). 캘리포니아 농교육에 대한 텔파이 연구. **서정덕박사 교회논총**, 223-250.
- 김승국 (1997). “특수교육연구의 변천”.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서울: 양서원, 703-722.
- 김승국, 변호걸 (2009). “청각장애교육의 이념”. **한국청각장애교육100년사**. 서울: 한국청각장애교육100주년기념사업회, 13-39.
- 김승국, 김웅범 (2009). “청각장애교육연구 및 연구기관의 변천”. **한국청각장애교육100년사**. 서울: 한국청각장애교육100주년기념사업회, 638-850.
- 김영순 (1975). 농학교 재학생의 청각장애 원인에 관한 사회의학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사회사업대학 대학원.
- 김정권, 김병하 (2002). **사진으로 보는 한국특수교육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철관 (1964). 리듬을 중심으로 한 농아의 언어지도.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현장연구발표논문(미간행).
- 김철관 (1966). 농아동의 정서반응 소고.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현장연구발표논문(미간행).
- 김철관 (1995). **인천성동학교 마흔 돌**. 인천: 인천성동학교.
- 대구대학교특수교육과40년사편찬위원회 (2002). **대구대학교특수교육40년사**. 경북: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40년사편찬위원회.
- 문미자 (1968). 농학교의 효과적 율창지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1(1), 67-73.
- 석동일 (1976). 보청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 논문, 한국사회사업대학 대학원.
- 박경란 (2009). 한국 청각장애교육연구의 최근동향(미간행), 한일협동연구원고.
- 박당우 (1963). 농아자에 대한 사회의학적 조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백남중 (2000). 일제시대 장애인 복지교육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보건사회부, 한국아동복지위원회 (1961). **한국장애아동조사보고서**. 서울: 보건사회부.
 서울농학교 (1993). **서울농학교80년사**. 서울: 서울농학교.
 신상식 (1972). 한국 농교육에 대한 고찰: 역사와 현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안태윤 (1963). **농교육 및 심리**(미간행 유인물). 대구: 한국사회사업대학 특수교육연구소.
 양석성 (1965). 난청과 농아에 대한 당면문제. **대한의학협회지**, 8(2), 40-43.
 옥정달 (2005). 국내 청각장애관련 학위 논문 현황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37-56.
 원영조 (1975). 청각장애아 통합교육의 성립과 아동요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사회
 사업대학.
 원영조, 신상식, 류상덕 (1974). 농학생의 사용어휘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연구**, 4, 71-92.
 원영조, 이태영 (1963). 농아의 평형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과학**, 1, 9-13.
 유길준 (1895). **西遊見聞**(影印本). 서울: 경인문화사.
 윤백원 (1946). 지문자의 창안을 내면서(미간행 자필자료).
 이계택 (1968). 인간경험의 통합형식으로서의 언어. **특수교육연구**, 1(1), 55-66.
 이규식 (1979). 청각장애아에 대한 임상청각학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사회사업대학 대
 학원.
 이규식, 백준기, 권요한 (1977). **청각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배영출판사.
 이규식, 권요한, 김갑림 (1979). **청각·언어장애아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이규식, 이태영, 김두희 (1971). 한국 학동기 아동들에 대한 난청실태조사(제1보). **경북의대
 잡지**, 13(1), 425-439.
 이규식, 김두희, 백준기 (1972). 한국 학동기 아동들에 대한 난청실태조사(제2보). **경북의대
 잡지**, 13(2), 357-364.
 이규식, 김두희 (1973). 고도난청아에 대한 잔존청력. **예방의학회지**, 6(1), 51-63.
 이달호, 신흥수, 김기복 (1961). 한국인 농아에 관한 연구. **대한의학협회지**, 4(8), 89-93.
 이태영 (1963). **특수교육개론**. 대구: 집문사.
 이한선, 옥정달, 김병하 (2004). 청각장애교육 관련 국내연구 현황분석: 90년대 이후.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6(1), 181-202.
 장진권 (2009). “서울농학교의 변천과 학교교육”, **한국청각장애교육100년사**. 서울: 한국청각
 장애교육100주년기념사업회, 377-392.
 장진석, 옴김 (2007). **미국 농사회의 변천사**. 서울: 교육과학사.
 정희경 외 6인 (1963). **특수아교육**.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조병수 (1968). 청능교육의 효과적 지도를 위한 고찰. **특수교육연구**, 1(1), 43-54.
 조병수, 문미자, 조정원 (1969). 농아동의 기초발음지도에 관한 일 연구. **특수교육연구**, 2(1),
 47-59.
 최병문 (1970). **구화교육**. 서울: 한국구화학교.
 한국사회사업대학 특수교육연구소 (1979). 청각장애아를 위한 **심리검사연수자료**. 대구: 한국사회
 사업대학 특수교육연구소.

20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1권 1호)

- 한국청각장애교육100년사편찬위원회 (2009). **한국청각장애교육100년사**. 서울: 한국청각장애교육100주년기념사업회.
- 홍기돈 (1963). “농아와 난청아”, **특수아교육**. 서울: 현대교육출판사, 167-185.
- 朝鮮總督府濟生院 (1922). **朝鮮盲啞者統計要覽**.
- 朝鮮總督府濟生院 (1928). **朝鮮盲啞者統計要覽**.
- 和久正志 (1935). 盲啞教育について, **文教の朝鮮**, 113. 朝鮮教育會.
- Brill, R. C. (1984). *International congresses on education of the deaf*. Washington, DC: Gallaudet College Press.
- Moore, D. F. (2003). *Educating the deaf*.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A Study on Scholastic History of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in Korea
: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1970s

Kim, Byung-Ha

Daegu University

Park, Kyung-Ran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was conducted to present the scholastic history of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in Korea. For that, we made three periodic divisions of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in Korea. From introduction & formation (1909) to the end of 1950s were regarded as a embryonic stage, 1960s was regarded as time of coming into existence, and after 1970s was set as a developmental period. Yu Kil-Chun introduced European and American education of the hearing impaired to our country for the first time on the document of AINWON(one of deaf asylum, 啞人院) in “Seo Yu Kyun Mun(西遊見聞, 1895)” by the late 19th century, and Yi Ik Min has learned visual speech at Chinese Gaeum(啓音) School for the deaf in 1908 with Hall’s help and has begun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in Pyeong Yang in the next year. Then a statistical survey of Korean blind & deaf was reported by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濟生院), and it provided the reality of the deaf-mute and social medical information for the first time under the rule of Japan imperialism.

After Korea gained independence, ‘Hangul finger spelling’ was made by Yoon Baek Won and it promoted communication skills of th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Rhee Ki Su earned a master degree of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from Gallaudet university for the first time as Korean in the middle of 1950s. The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was established in college from 1960s at Korea Social Work College, and then teacher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was established by four years college

level, but the early stage of researches for the hearing impaired focused more on audiology and health & medicine than an educational and psychology aspects.

After deaf and hard of hearing children were dealt with i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Rhee, Tae Young, 1963) partially, a limited number of studies on oral speech & auditory training were performed by teachers at the field. However, after 70s, various educational researches were performed such as history, teacher education, inclusive education and the literacy ability of the hearing impaired. In particular, researchers have begun to show the interest to a study about psychological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in the late 70s. But when judging from a viewpoint of scholastic history, we have no choice but to prescribe 1970s as beginning period of the educational study for the hearing impaired in our country compared with the outcomes of studies performed after the end of 1970s.

Key Words

: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scholastic history, study of deaf education, study of special education